

목포농협, 올해 '스마트팜' 통해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회 총회 성료...조합원 2천여명 결속
이상기후 예방 '첨단기술' 전면 도입 재비
상호금융 대출 8천억·마트 매출 300억 성과

목포농협이 지난해 내실 경영의 성과를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이상기후에 맞춰 올해 '스마트팜'을 통한 미래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다짐했다.

4일 목포농협에 따르면 최근 목포 신안비치호텔과 예술웨딩컨벤션, 에메랄드웨딩홀에서 '2026년 목포농협 영농회 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37개 영농회 소속 조합원 1천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김원이 국회의원, 이동수 목포시의회 부의장, 방현용 목포신안



목포농협이 최근 목포 신안비치호텔 등에서 '2026년 목포농협 영농회 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목포농협 제공>

시군지부장 등 각계 인사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업무보고와 조합원 교육,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종합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거둔 주요 성과가 공유됐다. 목포농협은 2025년 결산 결과 총자산 1조2천245억원, 당기순이익 439억7000만원을 달성하며 건전하고 내실 있는 경영 성과를 거뒀다.

사업부문별로는 신용사업에서 상호금융 대출금 8천억원을 돌파하며 '상호금융대출금 8천억원 달성'을 수상,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다졌다.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조합원 소득 증대와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목표로 문을 연 목포농협 하나마트 로컬푸드 북항점의 성과에 힘입어 '하나마트 매출액 300억원 달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목포농협은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기존 영농재배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스마트팜과 같은 새로운 농업 방식 도입을 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이를 위해 선진지 견학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선제적으로 가동하며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의 밑그림을 정교하게 그리고 있다.

아울러 '고객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One More!' 비전을 융합해 금융 소외계층 포용, 일자리 창출 등 조합원과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압도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할 방침이다.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은 "영농회 총회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소중한 자리"라며 "자산 1조2천억원 달성과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라는 성과는 농협을 믿고 이용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목포농협은 조합원의 실의 증진과 복지 향상, 소득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농업인의 영농환경 개선과 복지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전남농기원, 농가 경영 개선 6억8천만원 지원

농축산업 대표 경영모델 현장 실증 추진
팥·애호박·복숭아 등 5개 품목 집중 육성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농촌 소멸과 기후위기 등으로 악화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영 혁신 지원에 나선다.

전남농업기술원은 4일 "전남지역 농업경영체 20호를 대상으로 총 6억8천만원을 지원하는

'2026년 농가 경영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고수의 경영 모델을 육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경영 개선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사업인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은 품목별 생산 및 가공 기술을 융합해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증하는 프로그램이

다. 지원 대상 품목은 팥, 애호박, 복숭아, 수국, 곤충 등 5개 분야로, 5개 농가에 각 1억원씩 총 5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축인 '경영기록장 기장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경영기록장을 성실히 작성해 온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경영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지

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5개 농가에 총 1억8천만원을 지원해 농가 단위의 경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우수 경영 사례를 발굴·확산해 전남 농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신길호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은 "기후위기 심화와 농업 인구 감소,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영 리스크가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고수의 경영 모델을 개발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시민체험양봉장 참가 모집
5-12일 접수...꿀벌 생태교육·양봉체험

광주시는 4일 "꿀벌 생태를 직접 관찰하며 양봉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체험양봉장' 참가자 200명을 5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주시꿀벌연구회가 운영하며 체험양봉장 위치는 '늘푸른벌꿀농원'과 '각시꿀양봉'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자부담 15만원을 주관단체에 납부하면 1세대 당 벌통 1군을 임대받는다.

4월부터 8월까지 꿀벌 생태교육과 함께 밀밭을 활용한 양초만들기, 프로폴리스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 꿀을 활용한 립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체험 종료 후에는 임대한 벌통에서 생산된 벌꿀, 화분 등 양봉 산물을 참가자에게 1인 당 약 1kg씩 배분할 예정이다.

다만 급격한 기후변화로 등으로 꿀벌 폐사가 발생하거나 수확량이 큰 변동이 있으면 배분량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광주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풍요 가득 정월 대보름' 삼도농협, 부럼 나눔

지역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광주 삼도농협은 4일 "지난달 26일 '풍요 가득 정월 대보름 부럼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경로당 어르신, 독거노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삼도농협 부녀회와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직접 부럼세트 포장과 전달 봉사에 참여하며 나눔의 기쁨과 의미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도농협이 지난달 26일 부녀회와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풍요 가득 정월 대보름 부럼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삼도농협 제공>

이번 활동은 조합원과 지역 사회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삼도농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

동과 나눔 사업을 확대해 조합원과 지역 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임문제 삼도농협 조합장은 "정월 대보름 부럼 나눔은 나눔을 통해 공동체에 소속된 취약

계층을 함께 살피는 아름다운 우리의 미풍양속"이라며 "이번 부럼 나눔 행사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친환경 수목장

- ☑ 아름다운 자연
- ☑ 사용기한 없음
- ☑ 365일 관리
- ☑ 전문 이장
- ☑ 가족구성 가능
-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